

특 별 기 고

백린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박 종 근*

백린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도서관 도우회보 제 3집(2000.10)에 ‘도서관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란에 백 선생님을 소개한 지 꼭 15년이 지났다.

반세기전 60년대 말 우리들은 선생님의 터덕거리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두꺼운 안경태의 소탈하신 백 선생님이 들어오심을 직감했었고 이따금 안경을 치켜 올리시며 알아보기 힘들게도 흘려 쓰고 이리저리 화살표 있는 원고조각들을 주시며 정서하라시던 선생님을 내 어찌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선생님의 소천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인생은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그렸더라도 하며 너무도 허전했고 미국이라 선뜻 가 볼 수도 없어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대학도서관 사서는 교수들에게 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능력이 있고 언어도 잘 알아야 교수와 대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항상 사서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서가 되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당부하시며 강한 주문과 격려로 후배들을 채근하셨다.

선생님은 1961년에 단국대 사학과, 1963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는 등 만학임에도 그 학구열은 식을 줄을 몰랐다. 이렇게 선생님 자신이 그러한 소신으로 평소에 스스로 노력하는 생활로 일관하셨기에 더욱 후배들의 귀감이 되었고 존경을 받으셨다.

그렇기에 선생님께서는 외부의 어떠한 상황이나 상대에도 당당하셨고 우리들의 큰 울타리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들은 큰 위안과 용기를 갖고 선생님을 모시고 일 할 수 있었다.

25년전 보스톤의 선생님 자택에서 밤늦도록 술잔을 주고받으며 지난 정담을 나누면서도 자네가 미국에 왔으니 좋은 기회로 알고 더 열심히 하라며 격려해 주신 말씀들이 지금도 생생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애도하게 한다.

더욱이 선생님께서 한국의 후학들에게서 오는 편지 읽기를 그토록 좋아 하셨다는데 내가 정년 후에는 몇 차례 편지를 못 드려 그것이 그렇게도 마음에 걸린다.

우리나라 초창기 도서관계에서 선생님만큼 큰 업적을 남기시고 특히 사서에게 자긍심을 깊게 심어주는 원로들은 그리 흔하지 않다고 본다.

해방직후 불모지와 같은 도서관 분야에서 새로운 학문의 도입과 관련한 도서관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각급 협의체의 창설, 고서목록규칙등 업무처리 지침의 정립,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학을 비롯해 각종 교육기관에서 서지학, 분류법, 목록법 및 도서관사 강의 등 후학 양성 및 많은 저서와 논문들 그리고 조직개편이나 사서직 확보 등 대내외적으로 평생을 선구자적 위치에서 도서관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주도하셨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5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연세대학교에 설치된 도서관학과와 병행해서 1년 과정의 중견사서 연수과정인 도서관학교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도서관학교 강사였던 이재철 교수 등과 함께 자신들이 제1기 학생신분이면서 강의도 하신 것을 보면 초창기 우리 도서관계의 과도기적인 한 단면과 선생님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선생님께서서는 1948년부터 1972년까지 약 25년간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근무하시며 12년간 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1972년에 퇴직하시고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

이민 하신 후 계속 하바드대학 옌칭도서관에서 20여년간 근무하시다가 1993년에 정년퇴임하시고 단국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와 계시기도 했다.



1995.5.25. 이춘동 ‘녹원’ 한정식 집

특히 선생님께서 6.25 전쟁 중인 1950년 12월 10일에 우리나라 국보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귀중도서 등 7천여 책을 직접 부산으로 소개하였다가 서울 환도 후 다시 서울대도서관으로 가져온 장본인으로 그 경위를 1962년

1월 25일에 당시 혁명검찰부장 앞으로 제출한 경위서나 선생님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전시의 열악했던 여건 하에서도 오직 도서관을 위한 소명의식으로 창고의 책 위에서 지내시면서도 기록의 소중함을 아는 사서의 소명을 몸소 실천하셨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6만여권의 규장각도서를 현대목록규칙에 따라 한글로 정리하고 목록을 발간하신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그 간의 선생님이 남기신 여러 큰 업적들을 새삼스레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40여년간의 미국생활에서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장을 8년간 역임하셨고 보스턴 노인회장으로 6년간 봉사하시고 미국이민 백주년 기념사업으로 뉴잉글랜드 한인사를 편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등 선생님의 발자취는 선생님의 소천을 계기로 여러 현지 언론들과 교민들이 그토록 애도하며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멀리서나마 다시한번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을 되새겨 보게 한다.

선생님께서는 보스턴 한인교회 장로로써 교민들에게 왜 이민을 했는지 자신을 잘 알고 능력이 모자라도 거짓말 하지 말고 열심히 살며 한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항상 조언하고 권면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1923.7.24일에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셨고 2015.9.30일에 보스턴 근교에서 향년 93세로 소천하시고 보스턴 한인교회장으로 모셨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최선경 여사와 3남 1녀를 두셨다.

이제 선생님이어!

그간의 선생님께서 이룩하신 크나큰 업적과 도서관을 지키고 가꾸며 사서사랑에 쏟았던 정열과 애정은 저희들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부디 평안히 영면하소서.

2015년 10월 15일

박 중 근